**인도선교 간증 (수지6캠 정상일 목자)**

**기간: 2018.1.9 ~ 2018.1.17**

첫 해외선교였기 때문에 선교 준비과정부터 많이 서툴고 미숙했지만, 그런 저의 부족함 속에서 도리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기간이 허락되어 조급한 마음도 들었으나, 정말 소중한 팀원들을 만나게 된 만남의 축복부터 까다로운 비자와 여권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해주심으로써 저희 인도선교팀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팀 이름인 **“주인”**(주의 인도)답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곽야곱 선교사님은 매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 땅에 파송되었고, ‘바라나시’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의 중심지이며 불교의 탄생지로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암묵적인 탄압이 존재했으며, 저희 선교팀은 영적으로 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순종에 붙들려 현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참 제자됨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 저희가 섬기게 된 ‘사라이 수르잔 소망회사’와 ‘순달뿌르 소망회사’는 현지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라난 이곳 아이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종교와 무관하게 단지 물질적 도움을 구하러 교회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난타와 마술공연, 워십과 스킷공연, 페이스 페인팅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갖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제게도 감동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헛된 우상에 목숨을 걸고, 헐벗고 굶주린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이런 처지에 내버려두실까’라는 마음 속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음성은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고작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짧은 일주일의 선교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들에게 있어, 사역의 열매에 대한 조급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인도땅은 여전히 우상들의 나라이며, 당장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찰나가 아닌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100% 의롭다는 확신이 섭니다.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이 진정 우리의 소망입니다.

맡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이것을 믿으며 다시 소망으로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선교사님과 저희 선교팀을 통해 뿌려진 작은 씨앗이 아이들 마음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 바라나시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도땅의 복음화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 안에서, 온땅을 뒤덮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계7:10)**